

개미들 삼성전자株 ‘올인’... 外人이 판 4.1조 순매수

외국인 지분율 57.65%→55.41%
코로나19가 바꾼 업무환경 ‘호재’
4개 투자리포트, 목표주가 하향조정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무섭게 사들이고 있다. 최근 이러한 현상에 대해 ‘동학개미운동’이란 신조어까지 나왔다. 개미의 운동이 성공할 수 있을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도 따라 투자보고서를 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해 목표주가를 낮추고 있지만 증가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코로나19가 바꾼 업무 환경이 ‘서버용 메모리 수요 증가’로 이어져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개미는 삼성전자 주식을 총 4조110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인 순매도한 규모가 4조4162억원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매물을 개미가 모조리 받아낸 셈이다.

지난해 11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외국인 지분율(57.65%)은 55.41%로 줄

〈삼성전자 투자리포트〉

증권사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목표주가(원)	70000	65000	64000	70000	63000	70000	68000	72000	63000
예상 영업이익(억원)	392,970	373,660	396,910	389,320	383,170	440,960	374,180	384,000	348,486
부정적 코멘트	-	IT 세트 수요 감소	스마트폰, 2분기부터 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 실적 하락	DP부분 적자 전환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부진	전 사업부문 수요 하락	-	전세계 노트북 PC,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역성장
긍정적 코멘트	서버 수요 증가와 5G 스마트폰 시장 확대	서버용 메모리 수요 증가	메모리 수급 균형 유지	코로나19 이후 수요 반등	코로나가 서버 DRAM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급 조절	클라우드 기반 추가 하락은 플랫폼 환경으로 적극적인 매수 기회	낙폭 과대로 추가 반등 가능성	

/각사

었다.

◆ ‘실적 감소’는 악재

지난 16일 이후 증권업계에서는 총 9개의 투자리포트가 나왔다. 이 중 4개 리포트가 목표주가를 하향조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적 감소가 불가피해서다.

현재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가장 낮게 제시한 증권사는 키움증권과 하나금융투자다. 키움증권은 6개월 목표주가를 6만3000원, 하나금융투는 12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 6만7000원에서 6만3000원으로 낮췄다.

증권업계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으로 삼성전자가 사업하는 모든 부문에서 수요 하락으로 인한 실적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1분기 디스플레이 패널(DP)부문의 적자전환도 예상된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기존 전망치보다 9.2% 하향조정한 37조4000억원을 예상하면서 “향후 스마트폰, PC, TV 등 정보기술(IT) 세트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을 가장 보수적으로 예상한 하나금융투자 역시 “전 세계 노트북 PC,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역성장할 것”이라면서 삼성전자 예상 실적과 목표주가를 하향조정했다.

◆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호재’

다만 삼성전자의 반등 가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게 공통적인 시각이다. 목표가 하향조정은 실적 감소에 따른 기계적 조정일 뿐이고, 코로나19가 바꾼 업무환경이 오히려 삼성전자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규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IT세트 수요 이슈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문화의 변화에 따른 컨텐츠 수요 증가는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을 촉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우 SK증권 연구원 역시 “코로나19 위기를 지나면 세상은 극단적으로 클라우드(CLOUD) 기반의 플랫폼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의 실적 행진도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SK증권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실적 개선은 2021년 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고, 한국투자증권은 2021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해 예상실적보다 50.7% 늘어난 60조217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 추가 하락수준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매수 기회”라는 조언도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연 중 고점보다 28.8% 가량 하락한 상태다. 주당순자산비율(PBR)은 1.28배로 실적이 반토막났던 2018년 연말(1.1배) 수준까지 낮아졌다.

박우익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추가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다”고 예측했다.

/손승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ROFIEG의 30개 권고사항 중 데이터에 대한 접근 관련 내용〉

/한국은행

구분	권고사항
25. 일반정보보호법(GDPR)과 기술의 새로운 활용	금융서비스의 신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GDPR 및 관련 법령 적용에 관한 지침 마련
26. 규제 협의	데이터 처리 관련 EU법령의 실무적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기관 간 협의 확대
27. 비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리	비개인정보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접근·처리에 대한 법적 보장
28. 데이터 공유	디지털 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안전·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도입

한은 “금융혁신 지원과 더불어 규제 필요”

금융안정·소비자 보호 달성 방안
ROFIEG, 현행 규제 조정 권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접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변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에도 적합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핀테크 혁신에 따른 기술·시장 생태계 변화를 금융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2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금융·혁신·규제에 관한 EU집행위의 주요 권고사항’에 따르면 EU집행위의 핀테크 관련 권고 사항들은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EU집행위원회 산하 ‘금융혁신 규제장벽에 관한 전문가그룹(ROFIEG)’에서 발표한 ‘규제, 혁신 및 금융에 관한 30개 권고 사항’의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ROFIEG의 30개 권고안은 크게 ▲ 금융부문 내 기술의 혁신적 활용(권고사항 1~12) ▲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조성(권고사항 13~24) ▲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고사항 25~28) ▲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권고사항 29~30)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우선 권고사항 1~12는 혁신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규 리스크에 대응하고 레그테크(RegTech), 셉테크(SupTech)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사항 13~24는 금융인프라에 대한 접근, 사업영역 제한 등의 측면에서 기존 금융기관과 신규 시장진입자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한편 EU 내 국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고사항 25~28은 개인, 비(非)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경우 핀테크 혁신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익과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사항 29~30은 핀테크가 금융포용,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측면에서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관련 규제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희주 기자 hj89@

커피값으로 해외주식... 보이스피싱도 판별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7건 지정
투자상품 접근성·투자 확대 기대
서비스 악용방지 위한 대책 마련

앞으로 커피전문점, 제과점을 이용하고 받은 마일리지로 해외주식을 살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전화와 문자를 받을 때 금융·통신정보를 통해 보이스피싱 여부도 판별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최대 4년간 시범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중 신한금융투자의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타백 서비스는 오는 10월 출시된다.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제휴업체를 이용하고 받은 포인트가 소비자의 계좌에 입금되면 신한금융투자 앱(APP)에서 해외 주식을 살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제휴업체가 소비자의 계좌에 마일리지로 제공해 해외주식 매수자



금으로 활용(스타백 서비스)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돼 있는데, 특례를 적용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성과 소매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마일리지로 신속히 자산화 할 수 있어 소멸 포인트도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화나 문자를 받을 때 발신자에 대한 통신정보와 금융정보를 활용해 금융사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도 오는 8월 출시된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통신사가 로밍여부, 휴대전화 개통 정보를 활용해 1차 위험 메시지를 발송한다. 메시지를 받은 소비자가 PA SS앱에서 발신자의 성명이나 계좌번호

를 입력하면 나이스신용평가는 대출사기 보험사기 등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서비스 악용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사기 진단의 정확성을 모니터링해 금융위에 보고하는 부가조건을 붙여 2년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전자상거래를 위해 출금계좌 등록시 유심(USIM)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본인확인하고 출금동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온다. 이 서비스는 자동이체계좌 등록시 신청인이 입력한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와 해당 휴대폰에 탑재된 유심의 가입정보를 비교·대조해 일치할 경우 출금동의 및 본인확인을 완료하는 것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금리 대폭 인하

4월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금리가 1.25%로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최근 저금리 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에 직접 타격을 받는 저소득 산재근

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용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700명의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맞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한용수 기자 hys@